

# 상식과 질문으로 '판' 흔들다

영화 '배심원들' 15일 개봉

2008년 국내 첫 도입  
국민참여재판 소재  
집단지성으로 진실 찾아내

오는 15일 개봉하는 '배심원들'은 2008년 국내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다.

법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과 집단지성으로 이미 짜인 판을 뒤흔들고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제법 감동과 쾌감을 준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날.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인 8명 배심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재판은 유죄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양형 결정만 남은 상태. 피고인은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아들이다. 자백과 범행을 목격한 증인, 범행에 쓰인 도구 등도 있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재판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갔다가 뒤늦게 8년 배심원으로 합류한 청년사업가 남우(박형식)는 유죄 자체에 의문을 품는다. 배심원 제도에 재판장(문소리)은 유무죄부터 다시 다루기로 한다.

늦깎이 법대생, 10년간 남편을 보살핀 양양보호사, 재판보다는 일당에 관심이 많은 무명배우, 일찍 귀가해야 하는 주부, 지식을 뽐내는 대기업 비서실장, 평범한 20대 취준생 등이 배심원 면면이다. 평생 남의 죄를 심판해온 적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각자 살아온 환경과 처지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의견을 개진한다. 8명이 모인 공간은 사회 축소판이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빈부 격차, 세대 차이 등이 드러난다. 대세 의견을 따를 것을 중용하는 모습 역시 우리 사회 단면이다.

그러나 남우는 끈질기게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며 사건 정황에 의문을 제기한다. 모두가 유죄라고 말할 때 홀로 무죄라 주



영화 '배심원들'은 어쩌다 배심원이 된 보통의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조금씩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장한다. 소수 의견은 대세 의견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였던 재판도 균형추를 다시 찾아간다.

영화는 법 정의란 무엇인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재판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질문할 수 있는 용기와 편견을 버리고 그 질문을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영화는 주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면서도 한편의 소동극처럼 유쾌하다. 한정된 공간에서 대화로 주로 전개돼 자칫 단조로울 수 있지만,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재미와 활기를 불어넣는다. 배심원들과 관객의 눈높이가 맞아떨어진 점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쉬운 대목도 있다. 극적 반전을 위해서라지만 애초 부실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변호사나 검사도 그렇고, 뜬금없는 판타지적 설정도 작위적으로 느껴진다. 일부 캐릭터는 너무 평면적으로 그려진다.

극 중심을 잡는 인물은 재판장 역을 맡은 문소리다. 그는 카리스마는 물론 지적인 매력, 인간미, 고뇌 등을 동시에 보여준다. 첫 스크린에 도전한 박형식의 연기도 합격점을 줄 만하다.

이 작품으로 장편 데뷔한 홍승완 감독은 2008년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유사 사건 80여건과 판결문을 찾아보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한다.

/연합뉴스

## MBC 임정 100주년 드라마 '이몽' 김원봉 화제...시청률 5.0% 출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MBC TV가 기획한 토요극 '이몽'이 5%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5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5분부터 2회 연속 방송한 '이몽' 시청률은 5.0%~7.1%, 5.9%~6.5%를 기록했다.

첫 방송에서는 일본인 손에 자란 조선인 외과 의사 이영진(이요원 분)과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의열단장 김원봉(유지태)의 만남이 그려졌다.

'이몽'은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역사적으로 평가 엇갈리는 약산 김원봉을 내세우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을 낳았다. '암살', '밀정' 등 영화에서는 이미 다뤄진 소재가 있지만 대중의 접근성이 더 좋은 안방극장에서는 처음인 까닭이다.

유지태는 '암살'의 조승우, '밀정'의 이병헌과는 다른 이미지의 김원봉을 그리면서 논란을 떠나 일단 캐릭터 차별화에는 성공한 듯 보인다. 그의 "나라를 되찾는 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매번 거사에 목숨 걸기를 불사하는 모습이 초반부 주요 장면으로 각인됐다.

백범 김구가 보낸 밀정 '파랑새'가 알고 보니 영진이었다는 반전이 생각보다 일찍 밝혀지는 등 빠른 전개도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중국의 합작 투자로 200억원 제작비가 든 만큼 중국 상하이, 만주까지 아우르는 스케일 역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인물과 전개 방식, 주요 액션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



MBC드라마 '이몽'의 배우 이요원(왼쪽), 유지태. /연합뉴스

시각'과 너무 역동적이어서 호불호가 갈린 카메라워크 등은 제작진이 향후 편집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KBS 2TV 주말극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은 19.5%~24.8% 시청률을 보였으며, SBS TV 금토극 '늑두팻'은 6.8%~8.1%였다. JTBC 금토극 '아름다운 세상'은 3.5%, tvN 주말극 '자백'은 3.4%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한효주·정은채측 "버닝썬 간 적도 없어...루머 법적대응"

배우 한효주와 정은채 측이 버닝썬 사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관련 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버닝썬에서 한 화장품 브랜드 행사가 열렸으며, 그 자리에 30대 여배우가 참석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제보를 방송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이 브랜드와 모델 배우들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면서 한효주, 정은채의 이름도 거론됐다.

이에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5일 "한효주는 JM솔루션의 모델일

뿐 해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단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다"라며 "한효주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소속 배우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은채 측 역시 입장문을 내고 "정은채는 이미 지난해 4월 말까지 V사(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날부터 타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버닝썬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또한 그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양 측은 이어 "허위사실을 추측해 유

포하고 확대 재생산해 배우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SNS, 커뮤니티 게시물과 댓글들을 수집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적 절차를 토대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M솔루션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23일 버닝썬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불거진 문제들과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JM솔루션은 "해당 장소에서 진행된 행사 역시 브랜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을 뿐 그날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어버이날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전국이장회의(재) 50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55 UHD 숨터	00 국민 여러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회사 가기 싫어 2019(재)	00 12 MBC 뉴스 25 다크 나이스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남도 해방을 외친다 55 특목 보험설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뉴스 5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몽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버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경성판타지	00 고행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어린이날 기획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0 KBC 저녁뉴스 55 영재발굴단(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닥터 365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토크 55 SBS 8 뉴스
8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국민 여러분(재)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35 UHD 숨터 40 거리의 만찬(재)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박 다크멘터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보가 폴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6:00 한국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크 오늘	19:00 미니특공대 X
07:00 너티니츠	13:10 최고의 요리비결 〈달걀산적과 피해〉	19:30 EBS 뉴스
0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3:40 사건 브리핑-안전상황실 〈불기에도 어드벤처, 아시아 화산성 기행 화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브로모〉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띠띠뽀 띠띠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불기에도 어드벤처, 아시아 화산성 기행 화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브로모〉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탐영 구조대	21:30 한국기행
09:00 뽀뽀뽀 뽀로로	15:45 몬카트	〈나의 정원으로 오라 2부 스님의 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6:15 짹과 팡	21:50 EBS 다크프라임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5 건축탐구 - 집
10:30 한국기행	16:45 당동명 유치원1~2	23:55 모두의 모바일 MOMO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건설우무국과 주꾸미나라무침〉	17:15 마사와 곰	24:30 한국영화특선 〈마스터 고〉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새로운 것이 바람직하다. 48년생 염두에 둘 필요 없다. 60년생 늘 바뀌는 것이니 완벽한 마무리를 하려 할 필요는 없다. 72년생 의욕하고 있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길한 국세를 조성하라. 84년생 가변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98, 84
丑	37년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49년생 행운이 들어오고 있으나 변수도 작용한다. 61년생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는 골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75년생 집착만 가지 현하느나에 매여 있다. 85년생 필연적으로 격돌할 수밖에 없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79, 76
寅	38년생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국세이다. 50년생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다른 양상으로 비화되리라. 74년생 모든 것을 보류하고 운동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86년생 다각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8, 23
卯	39년생 동기가 절실해야 알차다. 51년생 변함없이 한결 같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63년생 임시변통적인 처리는 골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75년생 집착만 가지고 판단 한다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87년생 패도난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운의 숫자 : 21, 62
辰	40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다. 52년생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호 간에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 64년생의 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76년생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커서 낙심하겠다. 88년생 빨리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2, 56
巳	41년생 소리 소문도 없이 나타날 것이아. 53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꼭 이행해야 한다. 65년생 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려 말라. 77년생 조심으로써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낫다. 89년생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16, 19

午	42년생 견주어 본다면 한 눈에 쉽게 드러나리라. 54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돌이켜 봐야겠다. 66년생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사실을 알라. 78년생 탐탁스럽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용이하다. 90년생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4, 07
未	43년생 정리정돈하기에 좋은 날이다. 55년생 과격적인 변화는 향후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67년생 무리한다면 머지않아 곤혹스러워지리라. 79년생 돌발적인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91년생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지켜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4, 65
申	44년생 우려하여 왔던 바는 아니니 부담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56년생 살아온 공로가 자신의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68년생 상호간에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이 낫겠다. 80년생 재미가 없을 것이다. 92년생 길흉이 혼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5, 28
酉	45년생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57년생 깊은 거칠더라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69년생 흥한 기운이 보이니 잘 피해 가도록 하라. 81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93년생 양자 사이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2, 73
戌	34년생 희망의 무지개가 문전에 드리워져 있느니라. 46년생 처음에 승세를 잡아야 한다. 58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70년생 한시바빠 본으로 들어가야 옳다. 82년생 여무지게 마무리하고 나아 후 일을 도모하기가 용이해진다. 행운의 숫자 : 32, 14
亥	35년생 새로운 일에는 끼여들지 않는 것이 좋다. 47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59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71년생 애로 상황이 보인다. 83년생 긴 가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에 비유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58, 8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